

“프랑스인 불교매료 이유 生死 바로보는 가르침”

佛 손타크 신부 20일 내한 강연

인구의 1/4이 유희를 믿고 있고 불교관련 출판물이 급증하고 있는 프랑스. 이러한 불교 열풍은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불교사상의 이해에 따른 관심 증폭인가.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원장 김몽은)이 20일 서강대에서 개최하는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안톤 손타크신부(프랑스 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 사무총장)는 '아시아 종교가 유럽사회에 미친 영향'의 주제 강연을 통해 이와같은 프랑스의 불교 열풍을 진단한다. 손타크신부의 논문을 미리 소개한다.

“프랑스인에게 현세적인 행복을 약속해온 전통 종교인 기독교가 20세기에 다윈 인류의 환경 파괴와 질병·기아 등의 문제에서는 한계를 보여 많은 프랑스인들이 기독교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한 손타크신부는 “반면 불교는 인간의 경험과 정서 속에서 우러나온 진리인 ‘사성제’ ‘유희’ 등의 사상을 통해 이 세계가 겪는 고(苦)의 원인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어 역동적이고 진실을 바라보는 종교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불교에 귀의하고 있는 프랑스인 중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간의 죽음과 빈번히 마주치는 전문직 여성들이 대다수”라며 “이것은 개인의 자존(自存)에만 집착해 생사(生死)를 바로보지 못했던 프랑스인이 불교의 ‘유희’ 사상을 통해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또 인간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가 라는 정체성을 찾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손타크신부는 또 “무신론적 경향이 강해지는 프랑스인들은 개인이 겪는 고뇌와 장애를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데 이럴때 불교적 수행은 자성을 통해 내면의 조화를 이루어 감춰져 있던 잠재력을 이끌어 내기에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손타크신부는 “프랑스에서 불교가 중심 종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티벳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불교 등이 혼재되어 있는 프랑스 불교계가 연대해 정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 ‘프렘빌리지’ (Plum Village)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공동체. 한달간의 ‘여름수행’에 참여한 프랑스인들이 탁남한스님과 행선을 하고 있다.

‘唐 화엄학자의 儒道비판’

21일 백련불교아카데미 강좌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이 제 2회 백련불교 아카데미 강좌를 21일 대현문화원 교육관에서 개설한다. 신규탁 교수(연세대 철학과)가 ‘唐(唐)대 화엄학자들의 유도(儒道) 비판’을 주제로 강의한다.

신교수는 중국 불교사의 대전환기를 이룬 당나라의 수용관과 사유의 원형을 탐구할 예정이다. (02)265-5215

4와 경전

해심밀경



장백일 (국민대 문과대학·문학평론가)

기쁨도 미혹도 깨달음도 마음에서 온다. 그 마음이 작용하는 범위는 끝이 없다. 깨끗한 마음에서는 깨끗한 경계가 나타나고 더러운 마음에서는 더러운 경계가 생겨난다. 경계의 변화에도 끝이 없다. 그 경계도 마음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세상이 일체는 마음 작용 아닌 것이 없다.

부처님의 경계는 언제나 맑지만 사람이 만든 경계는 항상 번뇌로 더러워져 있다. 일체가 마음의 작용임을 부처님은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진실의 부처님과 만나게 된다. 무명과 탐욕이 있기에 마혹에 빠지게 되고 그 또한 마음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삶도 죽음도 마음에서 생긴다. 그것 역시 마음속에 있으므로 삶과 죽음에 얽매는 마음이 떨리면 생사의 세계도 다 된다. 그러기에 마음을 떠나 생사가 없다는 것을 알면 깨달음을 얻는다.

내주인은 나의 마음이다. 더러운 마음으로 판단하고 행하면 그 괴로움이 또한 수레가 마소를 따름과 같다. 부처

(無境)을 설명이 아닌가. 그 논리적 해명에 접할때 내 마음이 작용하는 실상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래서 만법이 곧 마음(유식)이요, 마음밖에는 법이 없음(唯識所變 心外無法)을 설교하신다. 오직 한마음, 그자체가 뿌리가 되서 만법을 행할 뿐이다. 그러므로 몸은 마음의 부속물일 따름이다.

서양에서 사람의 심층 심리를 꿰뚫는 정신분석학자로는 프로이트와 칼 융을 빼놓을 수 없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서 심층심리 작용인 무의식의 세계를 파헤쳐 보았고 칼 융은 그 무의식의 세계를 집단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으로 나눠 파헤쳤다. 그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갖가지 마음의 현상, 이를 좀 더 구체화하면 마음속의 그림자현상, 콤플렉스, 아니마, 아니무스 현상 등을 제시함으로써 마음의 실상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입증하며 증언한다. 프로이트나 융보다 훨씬 이전인, 2천5백년전에 부처님께서 이미 《해심밀경》으로 마음 작용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사람의 심리 작용 무의식 세계 해명

몸은 마음의 부속물... 정신분석학 ‘뿌리’

님이 설하신 《팔만대장경》은 한마디로 마음공부의 경전으로 집약된다.

그중에서도 《해심밀경(解深密經)》은 사람의 심층심리를 체계적으로 꿰뚫는 경전으로서 논집으로 설한 특이한 경전이다. 즉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실로 오묘한 마음의 작용을 깊게 해명하는 경전이다. 곧 유식사상(唯識思想)의 근본 경전으로서 아뢰야식과 말나식의 연기를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설한 경전이다. 인간의 심층세계인 무의식을 학리적으로 밝힌 불교대승의 이론적 집대성이다. 그렇기에 이 경전을 제하고는 불교사상을 생각할 수 없다. 특히 본경전의 ‘분별유가품 제6’은 마음 작용과 그 변역을 오묘하고도 절묘한 논리로써 파헤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자.

“부처님께서 자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마땅히 다름이 없다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저 그림자(影)는 오직 마음 때문이다. 선남자여, 내가 설한 바 마음이 얽혀 맺어진 인연은 오직 마음에서 나타난다.”

이는 자제 보살이 부처님께 그림자 마음(참마음을 휘방하는 또 하나의 마음)도 내 마음인가를 물었을 때의 대답이다. 유식의 관법을 통한 유식의 무경

프로이트나 융은 부처님의 손바닥에서 자기 나름의 견해를 이론화하여 말하기를 하고 있음이 아닌가.

나는 그들이 펴는 정신분석의 이론을 접할 때마다. 무릎을 치며 《해심밀경》에서 이미 설해 놓으신 진리에 탄복한다. 현대정신분석학의 핵심이 바로 이 경전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 이 경전을 의연하고서 정신분석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강의시간에 더러 프로이트같은 서양학자들이 연구한 정신분석학의 원뿌리는 바로 이 《해심밀경》이 아니겠는가 주장하기도 한다(그들이 불경을 접했다는 문헌은 못보았기에 확신은 못한다).

“깊고 비밀같이 상숙하는 진리를 해석하고 또 굳은 매듭같은 미혹에서 해탈케 한다”는 뜻을 가진 《해심밀경》은 그래서 역본경명이 보리유지 삼장의 《심밀해탈경》(5권11품)과 당나라 현장의 《해심밀경》(5권8품), 구나발타라의 《상숙해탈지바라밀요의경》(1권) 등 여러 있다. 이중 현장의 번역본이 가장 알려져 있다. 중국의 영인·현본과 우리나라의 원주·원효·경총스님 등의 주석서가 있었으나 원주스님의 《해심밀경소》(10권)가 유일하게 현존하여 널리 읽히고 있다.

불교 원전 연구 ‘가속도’

팔리성전협 창립... 회장에 전재성교수 가산불교학 연구·번역서 하반기 출간

그동안 미미한 단계에 머물러 있던 우리나라 불교학계의 원전 연구가 최근 한국팔리성전협회의 창립,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의 원전 번역서 및 다른 출간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광복사(주지 능인)에서 창립법회를 갖는 한국팔리성전협회는 회장에 《팔리어사전》을 낸 바 있는 전재성교수(한국불교대)를 선임하고 서문각·원의

있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도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해 연구·번역서를 집중 출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연구위원인 이종철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철학종교학)가 《아비달마구사론》중 ‘계품(界品)을 12월경 출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지수교수(동국대 인도철학)가 《유식삼십송》, 김성철박사(동국대 인도철학)가 《중론》, 최봉수박사(동국대 불교학)가 팔리어 사서류 등의 논소(論疏)를 맡아 연구·번역 중이며 《대승집보살학론》, 《이부종사론》, 《해심밀경》, 《대승장엄경론》 등의 연구와 번역도 진행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부터 논소 관련 원전 번역서의 출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 원전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교육기관 ‘심학원’을 통해 ‘원전연구 2세대’를 양성하고 있다.

포토샵, 페인트, 파워포인트,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로터스 넷

베트남 불교계 소식과 불교도서 정보, 불교음악은 물론 베트남어까지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 ‘로터스 넷’이 개설됐다.

‘로터스 넷’은 베트남 불서 12권의 내용을 요약해 텍스트 정보를 제공하고 책의 표지그림도 그래픽 정보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90여종의 법어 명상 기타 불교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불교음악이 수록된 테이프 11개도 공개해 이곳을 방문한 네티즌은 인터넷 상에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VPS(베트남어 프로그램)를 웹브라우저에 설치해 텍스트 정보를 열람하면 베트남어도 공부할 수 있다.

불교전자잡지 《로터스》가 제공하고 있는 ‘로터스 넷’에는 ‘불자의 도리’ ‘명상과 수행’ ‘전쟁과 평화’ ‘과학과 불교’ 등 총 17가지 주제에 대한 담마나다스님(베트남)의 글과 ‘도둑과 왕’ ‘정말인가’ 등의 베트남의 전래 불교우화도 열람·로딩할 수 있다.

이외에도 7월15일부터 한달간 ‘프렘빌리지’ (프랑스)의 여름수행을 주관하고 9월초순 위상훈(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탁남한스님의 1997년도 일정을 소개하고 있다. 주소 ‘http://www.telepath.com/lousnet/home.htm’

長腦 山蔘

보은의 선물 · 감동의 선물
최고의 건강 선물
역시 산삼입니다

존경하옵는 불자님께 정숙한 새해를 맞이하여 성분을 축원드리오며 지난해 힘들고 지친 심신을 새상품 산삼으로 기력 회복시켜드리고자 보시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홍천입업협동조합 공급하는
10~30년根 수량제한 한정판매

장뇌산삼 눈이 맑아지고 뇌의 기능을 좋게하며 인체 저항력을 강화시켜 면역기능과 자연 치유력을 높여줍니다.

장뇌산삼이란?
장뇌산삼은 산삼의 씨앗을 산삼이 자생할 수 있는 깊은 산중에 뿌려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양생된 일명 山蔘山蔘입니다

-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능
長腦山蔘을 통해 山蔘의 효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효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실로 경이적입니다.

‘겨울철’은 허한 몸을 보하는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장뇌산삼 서울 사업부
02)207-8387
0346)591-3989

공급 홍천입업협동조합 검수품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등에 탁월한 효과

-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관음출판사

관음역사시리즈 8
古典
풍수학
실심부

수년간의 연구과정에서 탄생한 풍수학의 정통.
申 坤 지음
값 18,000원

본에는, 보고자 하는 뜻이 있고 입에는, 먹고 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다. 산천은 풍세(風勢)와 수기(水氣)를 이루어서 대기(大器)를 형성한다. 사람도 여기에서 길러지는 것이니 인격(人格)은 지령(地靈)이라 하였다.

시주학 핵심비결
시주학
승희스님 펴냄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명書
신국판/값20,000원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A5신/양장본
735,000원

관음출판사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4 경성빌딩
전화: 921-8434 팩스: 929-3470